

제 91회 연구모임 (1월 11일) 발표요지

## 주시경의 종교 행적과 신앙관

이 덕 주 (기독교문사 편찬실장, 목사)

### 1. 머리글

이 글은 한힌샘 주시경의 종교 관계 행적 및 신앙관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글운동의 선구자' 주시경의 종교 신앙적 측면을 조명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인물 연구에 있어 외적 활동이나 업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적인 사상과 신앙이다. 주시경의 경우 그의 한글 운동을 비롯하여 그가 전개한 사회개혁 운동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내적 요인으로서 그의 종교 신앙적 이념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둘째, 주시경의 종교 신앙적 이념을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종교 관계 행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의 한글 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은 국어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 연결되어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던 그의 기독교 관계 행적을 재조명함으로써 그의 신앙관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 사회개혁 운동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주시경의 종교 관계 행적을 먼저 살펴보고 그가 <<신학월보>>와 <<가명잡지>>에 쓴 글을 중심으로 신앙관과 실천 원리를 정리할 것이다.

### 2. 주시경의 종교 관계 행적

#### 1) 배재학당을 통한 기독교 접촉

주시경은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신학문을 습득하게 되었고 또한 한글 연구와 한글 보급 운동의 기틀을 닦았다. 이와 함께 그는 배재학당에서 기독교를 접하였고 1900년 6월 졸업할 무렵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배재학당에 재학하던 5년 기간은 기독교 접촉 및 탐색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시기는 그의 나이 19-24세에 해당하였으니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진보적 이념을 형성한 시기였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로부터 받은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미 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은 '조선 전역에 자유주의적 기독교 교육을 확산' 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1890년 무렵 학생들은 매일 열리는 예배와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하였다. 주시경은 이같은 배재학당에서 수학하는 동안 협성회 회원, <<독립신문>> 교보원, 삼문출판사 시간제 고용인 등으로 일하였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에 접촉하면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 2) 정동교회 청년회 활동

배재학당을 졸업한 주시경은 1904년 상동청년학원 교사로 부임하기까지 5년간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직업으로 선교사의 어학 교사,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소 교사 겸 사무원직을 갖고 있었다. 이 보구여관은 이화학당 교사와 학생들이 관계하고 있었으며, 전문 전도부인을 두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등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갖고 운영되었다. 주시경은 이와 같은 기독교 여성 의료기관에 직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성과 위생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그는 정동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안에 청년 단체로 1897년 조직된 월은청년회에서 인제국장이란 임원으로 활약하였다. 월은청년회의 임원들은 노병선, 양홍묵, 조한규, 윤성렬, 민찬호, 이경직 등으로 이들은 배재학당, 협성회, 독립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주시경과 동지적 결속을 맺고 있던 기독교인들이었다. 주시경이 맡았던 인제국장이란 직책은 월은청년회의 구제 활동을 주관하던 부서였는데 주로 교회 안팎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그는 여성과 소외된 민중 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 구제, 선교 활동을 벌임으로써 기독교의 평등주의 인권 사상을 직접 체험하였다.

## 3) 상동교회 청년학원 활동

주시경은 1904년 상동청년학원 교사로 청빙받아 부임함으로써 '상동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는 그의 한글 연구 및 보급 운동이 보다 체계화되고 영향력 있게 전개되던 때였다.

상동청년학원은 상동교회의 청년 단체인 말날류청년회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구한말 민족운동 세력의 중심점 중 하나였던 '상동파'의 근거지이기도 했던 이 학원에는 설립자 전덕기, 교장 이승만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교사로 참여하였다. 상동청년학원 및 상동교회 말날류청년회를 설립한 전덕기는 남대문 시장에서 숯을 팔던 상민 출신의 기독교 민족주의자였으며, 상동교회는 남대문 시장 부근의 민중 계층들이 교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주시경은 상동청년학원으로 옮기면서 전덕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정동교회 시절보다 민중 계층과의 접촉이 빈번했고 그들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상동청년학원 교사 및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민족 의식을 확고하게 갖출 수 있었다. 또한 상동청년학원에서 발행하던 계몽주의 잡지 <<가령잡지>>를 통해 한글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지리, 위생, 가정 등의 주제로 활발한 문필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무렵 쓴 글들의 사상적 밑바탕에 '민족'이 입관되게 표출되고 있음도 그의 민족주의 신앙 형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 4) 대종교 개종 문제

주시경이 말년에 대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은 김윤경에 의해 증언된 이후 별 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그 동기는 기독교를 서양인의 종교 내지는 서구 사대사상의 침투로 보고 민족 종교인 대종교로 옮겼다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다른 자료들이 밝혀지지 않아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 교회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연장 선상에서 주시경의 개종을 상정할 수 있겠다. 특히 그가 몸담고 있던 상동교회의 말 날류청년회가 조약 체결 직후부터 과격한 정치 투쟁에 나서자 선교사들이 청년회를 해체시키고 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규제하고 나섰다. 이 같은 교회 당국의 행위는 비민족적인 처사로 비쳐졌을 것이고 이에 새로운 민족주의 비밀 종교 단체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대종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개종은 신앙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1914년 7월 급작스럽게 별세하고 그 장례식이 상동교회에서 거행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대종교 개종의 사실 여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 장례식은 김진호 전도사가 호상이 되어 예배당 안에서 거행되었다. 이는 주시경의 말년도 상동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그가 별세할 때까지 상동교회의 청년학원과 공육학교는 물론 배재, 이화, 경신 등 기독교 학교에도 꾸준히 나가 교사로 활동하였다는 점도 그의 활동이 기독교적 배경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 3. 주시경의 신앙과 실천 원리

#### 1) 유일신 '하느님' 신관

주시경의 기독교적 신앙관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자료는 그가 <<신학월보>>에 발표한 "사람의 지혜와 권력"이란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동물과 인간, 야만인과 문명인의 이지적 능력 차이를 비교하면서 짐승뿐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권력은 '하느님'께로부터 발원된 것으로 보고 '하느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러한 궁극적인 지혜와 권력에 의존하는 신앙적 행위로 이해하였다.

그에게 있어 '하느님'은 인간의 감성뿐 아니라 이성의 지적 활동의 궁극적 목표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언어 활동도 인간 속에 내재한 '신(神)'의 깨달음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깨달음(覺)'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신'의 영역이며 이것이 절대자 유일신 '하느님'과 통하는 영역이며, 바로 이 '신'의 영역에서 지적, 종교적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하느님'을 유일신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그러한 인식 바탕에서 불교의 풍속, 산천에 복을 비는 행위, 신장과 터주, 성주와 제석, 조왕과 걸립 등 미신적 행위를 버리도록 권면하였다.

## 2) 만민 평등주의 인간관

주시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구별이나 차등은 '하늘이 주신 뇌와 손의 활동' 정도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전제봉건주의 사회 체제가 부여한 계층의 구별이나 신분에 따른 사회경제적 차등 구조를 부인하였다. 그는 오히려 특별한 생업이 없이 무위도식하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양반계층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반면에 봉건적 사회 제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녀자와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내외하는 풍속'을 버려야 할 폐습으로 규정하였으며 남성 중심의 놀이문화도 개선하여 여성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를 창조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는 어린이의 교육과 위생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글을 발표하였는데, 다만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주시경이 <<가당잡지>> 교보원으로 편집 실무를 맡아 보며 순한글로 잡지를 낸 이유도 '남녀 로소 상하 귀천 빈부 지우 무문후고 다 알기 쉽게 하랴고' 라고 밝힌 점도 그의 평등주의 평민사상을 잘 드러내 준다. 그의 한글 운동도 이 같은 평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에서 맥락을 잡아야 할 것이다.

## 3) 사회·국가관 - 실천적 민족주의

주시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구별과 차등이 인간에게 부여된 '지혜'와 '권력'의 활용 정도에 따라 판가름되듯 인종과 국가간의 지배와 피지배, 가난과 부요의 차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유럽 인종에게 지배받게 된 이유를 인디언들이 '그 뇌와 손을 합당하게 쓰지 않으므로 남의 좋은 정략과 규모와 기계를 저의 눈으로 보면서도 본받을 생각도 두지 않다가' 토지와 경제를 빼앗긴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그런 면에서 '그는 새로운 과학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치없는 속기(俗忌)나 풍속'을 버리고 '규모와 풍속을 변통하여'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합당하게 기계, 거처, 의복, 음식을 아름답게 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상에 우뚝는 인종되기를 도모할지어라' 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과학적 합리주의, 실용적 실천주의에 근거한 생활 개량과 함께 우리 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재발굴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삼았다. 그의 관심은 가정에서 물독 씻는 일, 상한 음식 처리 문제, 방 안의 숯불의 해, 아동 위생, 여성들의 놀이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에

있었으며, 공리공론이나 단순히 전통이란 이유로 강요되어 온 '이치없는 속기나 풍속'을 개혁하였다.

그의 한글 운동도 이 같은 과학적 실용주의와 실천적 민족주의 국가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소외받던 한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그 우수성을 증명하였으며 한글 보급 운동을 벌여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추구하였다. 그에게 있어 한글은 국권 회복의 한 방편이었고 민족 운동 차원에서 한글 운동을 전개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한글을 통해 민족을 재발견하였고, 그가 <<가명잡지>>에 우리 나라 역사와 지리에 대하여 많은 글을 쓴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민족 의식을 운동으로 펴 나가는 데 있어 기독교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

#### 4. 맺음말

주시경은 배재학당에 입학하면서 기독교에 접촉하였다. 5년 재학 기간 중 기독교 진리를 탐색하였고, 졸업 무렵 세례받고 정식 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배재학당 졸업 후 선교사 어학 선생,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소 직원 및 교사로 일하면서 정동교회의 월은청년회 임원으로 활약하였는데, 이 무렵 여성과 소외 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4년 상동청년학원 교사로 부임하면서 상동교회의 전덕기 전도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민중 계층 중심의 상동교회를 배경으로 민족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민족 의식이 한층 공고하여졌다. 그가 후에 대종교로 개종하였다는 증인이 있으나, 이것은 좀 더 객관적인 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내용이다. 오히려 그의 장례식이 교회에서 거행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삶이 기독교와 연결되어 매듭지어졌음을 암시한다.

주시경은 기독교의 전통 신관인 유일신 '하나님' 신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권력'의 궁극적 목표이자 발원이었다.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는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신'을 통하여 깨달아지며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의 근원이 된다. 인간, 인종, 국가 간의 차등은 이러한 '지혜'와 '능력'의 활용 정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평등주의 평민사상에서 봉건주의 사회 제도가 안고 있는 신분 구별과 차별 대우를 거부하였다. 그는 과학적 합리주의, 실천적 실용주의의 사회국가관을 갖고 한글 및 우리 나라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였으며 가정 위생, 아동 교육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특히 한글 운동을 통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려 하였고 이 운동은 그에게 있어 그 시대 민족운동가들의 공동 과제였던 국권 회복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었다.